

# 광주시민 기부 탄소포인트로 '탄소저감숲' 조성

### 시민 1826명 3511만p·광주은행 후원금 모아 660㎡ 규모 시민참여 기반 탄소중립정책 선순환...오늘 숲 조성 행사

광주시민들이 기부한 '탄소중립포인트'가 탄소저감숲 조성에 투입된다. 이는 광주시 탄소중립 정책과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심 녹색공간을 조성한 선순환 사례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북구 충효동 광주호호수생태원 내 660㎡ 부지에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탄소저감숲'을 조성했다. 이 숲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

민들의 탄소중립포인트와 광주은행 후원금 등 총 4800만원을 들여 조성한 숲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시민 1826명의 탄소중립포인트 기부금 3510만9000원과 광주은행 후원금 1900만원을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광주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지급하며, 현금·카드로 환급받거나 광주시에

기부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탄소은행'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 제도는 2012년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로 개편돼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는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전국으로 확산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혁신 최우수사례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가구 수는 37만5571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입률(56%)을 기록했다. 광주시는 시민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으로 조성된 탄소저감숲이 온실가스 흡수량과 환경의식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배 시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조성 사업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광주시 탄소중립 정책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며 "환경을 위한 시민들의 실천이 모여 2045 탄소중립 도시 실현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6일 오후 3시 북구 충효동 광주호호수생태원에서 '탄소중립포인트 기부금 활용 시민참여 탄소저감숲 조성 기념행사'를 연다. 기념행사에서는 학생들과 가족 단위 희망자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나무심기 행사도 진행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어린이들과 국무회의장 향하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5일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청와대 본관을 나서고 있다. **백민**

### 김성진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업무 돌입

#### 취임식 오늘 나주 본사 1층 대강당서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에 김성진 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사진)이 4일 취임했다. 김성진 신임 이사장(63)은 광주 대동고와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에서 동아시아학·중국경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3회 합격 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대변인·지역경제정책관·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한국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산업부에서 27년을 근무한 실물산

업 경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지만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취임식은 6일 전력거래소 나주 본사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실시간 전력 공급 관리를 총괄하는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의 운영, 전력계통의 운영, 실시간 급전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나주=조원진 기자 pose007@



## 광주송정~수서 간 KTX·SRT 15일부터 중련운행

### 주당 2460석 증가 효과 코레일-एस알, 시운전

오는 15일부터 광주송정~수서 구간 고속열차 좌석이 늘어나면서 이용 편의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광주송정역과 수서역을 오가는 호남선 일부 고속열차에 두 편성을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운행'이 15일부터 시범 도입된다고 5일 밝혔다. 중련운행은 KTX와 SRT를 하나의 열차로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으로, 교차운행보다 한 단계 나아간 통합 운영 형태다.

이번 조치는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증편을 건의한 결과로, 그동안 지역 정치권 및 시민들과 함께 증편 촉구 활동을 이어온 데 따른 것이다. 시범운행으로 수서역 출발·도착 고속열차 좌석은 주당 총 2460석(6회·회당 410석)이 추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상시 매진으로 불편을 겪던 이용객들의 수요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말(토·일요일)에는 기존 410석 규모의 SRT에 410석 규모의 KTX-산천을 추가로 연결해 총 820석으로 좌석 공급을 두 배 확대한다. 월요일과 금요일 등

혼잡도가 높은 평일에도 기존 SRT 열차에 동일 규모의 SRT를 연결해 중련운행을 실시한다. 이용객 혼선을 줄이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주말 중련운행 열차 가운데 KTX가 포함된 구간은 운임은 SRT 수준으로 약 10% 할인 적용한다. 다만 해당 할인 열차 이용 시 마일리지의 적립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은 중련운행 시범도입에 앞서 지난 30일부터 시운전에 돌입했다.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은 오는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시운전에서는 KTX와 SRT의 통신, 제동, 비상제어 등 핵심 시스템이 연계돼 이상 없이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발표 이후 코레일과 SR은 열차·선로·영업설비 호환성을 점검해 왔다. 지난 2월 25일부터는 SRT가 서울역에, KTX가 수서역에 운행하는 시범 교차운행을 하고 있다. 코레일과 SR 등 양측은 시운전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운영 시스템을 보완하고 시범 중련운행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통합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광주서 5월 한달간 매일 '오월영화' 상영

### 5·18기록관, 기획전 연계 무료 상영회

5·18민주화운동 기념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는 5월 한 달 간 매일 '오월 영화' 다섯 편씩이 상영된다. 광주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기획전 '광주 5·18: 도시 정체성과 민주주의'와 연계해 '5·18 영화상영회'를 오는 31일까지 개최, 매일 영화 다섯 편을 연속 상영한다. 이번 영화상영회는 기획전에서 소개하는 5·18민주화운동 기록사진을 영화 콘텐츠로 확장해 관람객들이 1980년 5월 광주의 역사와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상영회를 통해 사진 중심의 전시에 영화적 서사를 더하고, 관람객에게 더 입체적인 역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화상영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기록관 3층 영상실에서 진행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기록관은 상영 순서에 따라 각 영화를 하루 1~3회 상영할 계획이다. 상영작은 강상우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

리 '김군'(2018), KBS 광주방송총국 제작 다큐멘터리 '1980. 로송과 쇼벨'(2023), 방성수 감독의 단편영화 '오월'(2023), 오재형·임영희 감독의 애니메이션 '광주 5·18: 도시 정체성과 민주주의'와 연계해 '5·18 영화상영회'를 오는 31일까지 개최, 매일 영화 다섯 편을 연속 상영한다. '김군'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찍힌 사진 속 한 시민군의 행적을 추적하며 5·18의 진실과 기억을 되짚는 작품이며, '1980. 로송과 쇼벨'은 '5·18 꼬마상주' 사진의 촬영지를 추적하며 외신기자들이 기록한 광주의 진실을 조명한다. '오월'은 가족의 기억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를 돌아보고, '양림동 소녀'는 5·18에 참여한 시민군이자 문화운동가, 여성운동가로 시대와 맞섰던 한 여성의 기억과 그림을 바탕으로 제작한 구술사 애니메이션이다. '팬텀'은 고등학생 시 기록관의 상영 순서에 따라 각 영화를 하루 1~3회 상영할 계획이다. 상영작은 강상우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

## 호르무즈 한국선사 운용 선박 폭발·화재사고

### 정부, 재외국민보호대책회의 개최...깊은 우려 표명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한국 선박 폭발·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재외국민보호대책본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회의는 5월 0시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중동 지역 7개 공관과 해양수산부가 참석했다. 앞서 4일 오후 8시 40분께(한국 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서 한국 해운사 HMM이 운영하는 화물선(HMM NAMU)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했다. 정부는 화물선이 공격받았을 가능성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주 아랍에미리트대사관과 주두바이총영사관은 사건 발생 직후 선사·유관기관 등을 접촉해 한국 선원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력을 요청했다. 회의에서 김 차관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한국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다행히 이번에는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며 언제든지 한국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국 민의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 공관들은 주재국 관계 당국과 상시 소통하며 우리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 왔으며 유사시 즉각적으로 우리 선원 구조 등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재국 측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현지 정세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본부·공관 간 긴밀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 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 전남서 즐기는 반값여행 5개 시·군 접수

### 도, 지역사랑 휴가 지원사업 5~6월분 신청

전남도는 인구 감소 지역 여행비 반값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이 4월까지 접수한 결과 전국적으로 관광객의 높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5개 군에서 5~6월분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 등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은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지역 선정 군은 영광군, 영암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5~6월분 신청을 받는 군은 4곳으로, 접수 일정은 영암군 5월 8일, 고흥군 5월 중순, 해남군과 영광군 각 5월 26일, 완도군 5월 말이다. 강진군은 자체적으로 '반값여행' 사업을 추진 중이며, 6월부터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할 예정이다. 박정철 기자 holbul@



고흥 쪽선

## '3중고' 여파에 지역 건설사 줄도산 위기

▶1면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진 자재비 폭등으로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원가 상승은 건설사들이 '사형 선고'와 다를없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류비 상승은 자체 수급 지연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공기 연장과 그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이라는 또 다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건설업의 위기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도산을 넘어 지역 실물 경제 전반의 도미노 붕괴로 번질 우려가 크다. 특히, 종합 건설업체가 무너지면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많은 전문건설업체와 자재 납품업체, 장비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자금난에 빠지게 된다. 이는 곧바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과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며 지역 내수 소비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원인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

와 지자체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하고 있다. 특히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사의 조기 집행과 물량 확대, 고급 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 지원책 마련, 그리고 미분양 해소 위한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인공호흡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위기 기업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퇴출보다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지원과 회생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적 배려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업은 지역 경제의 동맥이다.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긴급 자금 지원과 공공 발주 확대 등 선제적인 '플랜트임'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